“군고구마같은 따뜻함 보여드릴게요”

‘유별나! 문셰프’ 배우 에릭

스타셰프 역…채널A 금·토 방송

‘유별나! 문셰프’

“도시적이고 까칠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인물을 연기하고 싶었어요.”

그룹 신화 출신 가수 겸 배우 에릭(본명 문정혁·41)은 최근 온라인으로 진행된 채널A 새 금토드라마 ‘유별나! 문셰프’ 제작발표회에서 출연 계기를 이처럼 밝혔다.

에릭은 이번 드라마를 통해 ‘신입사원’(2005)과 ‘무적의 낙하산 요원’(2006)을 함께한 최도훈 PD와 호흡을 맞춘다. 그간 ‘삼시세끼 어촌편 3’(2016), ‘현지에서 먹힐까?’(2019) 등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히 활동을 이어왔지만 드라마 출연은 ‘또 오해영’(2016) 이후 4년 만이다.

지난 27일 첫 방영된 ‘유별나! 문셰프’는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서하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스타셰프 문승모(에릭 분) 앞에 기억을 잃은 패션 디자이너 유벨라(고원희)가 나타나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렸다.

그는 “요리하는 장면을 대역 없이 99%로 정도 소화했다”며 “평소 요리를 좋아하고 요리 프로그램도 많이 했지만 셰프 역이다 보니 셰프님께 자문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에서 벌어지는 살벌한 이야기와 서하마을의 따뜻하고 정겨움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그 외 음식이나 패션같은 볼거리가 많아 특히 해외팬분들이 즐길 수 있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

에릭은 “드라마 전체를 꿰뚫는 매력은 사람들 사이 따뜻함인 것 같다”며 “겉은 까맣지만 안은 따뜻하고 달콤한 군고구마 같은 드라마가 될 것”이라 말했다.

금·토요일 밤 10시 50분 방송. /연합뉴스

방송인들, 한국 코로나19 대응체계 우수성 해외에 알린다

손미나·알베르토 몬디 등 ‘민간 외교관’ 역할 톡톡

전직 KBS 아나운서 출신 여행 작가 손미나(왼쪽)가 스페인 한 방송에 출연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설명고 있다.

국내 방송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식 방역 체계의 우수성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방송가에 따르면 알베르토 몬디는 최근 이탈리아 라이뉴스24와 화상 인터뷰를 하며 “한국 정부는 바이러스를 잘 차단했다”고 평했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선을 공개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검사를 진행하는 투명하고도 꼼꼼한 대응 시스템을 치켜세우는 한편,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많은 인원의 감염 여부를 효율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손미나 작가는 스페인 인기 프로그램 ‘국민의 거울’에 화상 연결로 출연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잘 잡을 수 있었다”며 적극적인 확진자 동선 확인과 전수조사, (빠른) 검사,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 등을 비결로 꼽았다.

이에 대해 현지 프로그램 진행자가 “스페인에서 가능할지 모르겠다. 사생활 침해나 인권 문제를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자 손 작가는 “개인정보는 일체 유출이 안 된다”고 바로잡기도 했다.

프로그램 출연자들은 손 작가가 자세하게 전해주는 한국 정부와 시민들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듣고선 “한국은 시민의식과 전염병 방역에 있어 세계 최고의 모범국”이라고 극찬했다. /연합뉴스

‘6시 내고향’ 7천회 … 고향 나들이로 따뜻한 위로

KBS 1TV 장수 프로그램 ‘6시 내고향’이 30일 방송으로 7천회를 맞았다. 1991년 5월 20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올해로 29년 역사를 자랑한다. 근대화 이후 시골을 떠난 도시인들에게 고향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탄생했다.

이날 7천회 특집 방송은 오랜 세월 함께해준 시청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의에 빠진 농어촌 주민들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채웠다. ‘내고향 상생 장터, 함께 삽시다’는 생산물을 폐기해야 할 처지에 놓인 농어민들에게 새 판로를 제공하고, ‘청년회장단이 간다!’에선 손헌수, 이정용, 기성 앤더슨이 충남 서산의 어르신을 위해 활력과 감동을 선사했다. /연합뉴스

영화 ‘감기’ 코로나19에 재조명, 4월 대만서 개봉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조명된 영화 ‘감기’가 대만에서 개봉한다.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김성수 감독 영화 ‘감기’를 4월 30일 대만에서 개봉한다고 30일 밝혔다.

CJ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코로나19로 동남아시아에서 TV, 주문형비디오(VOD)용으로 재난 영화 수요가 매우 높아졌다”면서 “그 중 대만에서는 신작 개봉도 미뤄진 상황이어서 ‘감기’를 소규모로 개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선보인 ‘감기’는 호흡기로 감염되는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가 한국을 휩쓸면서 정부가 도시폐쇄를 결정하고, 갑자기 격리된 사람들이 아비규환 속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 내용의 재난 영화다. 개봉 당시 312만명을 동원했고,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주목받았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KBS청소년 특별기획 특선다큐 르네상스의 거장들 55 날아라 슛돌이 뉴 비기닝(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빠샤 메카드S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톡톡 보험설계
1	00 KBS 청소년 특별기획 위기탈출 넘버원 스페셜	00 KBS청소년 특별기획 특선다큐 더 플래닛스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KBS 청소년 특별기획 온드림스쿨 스페셜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뉴스브리핑
3	00 전국을 달린다(재) 10 전라도 매력청(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나쁜사랑(재)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00 풍미 오디세이	00 KBC특선다큐 양로원으로 간 아이들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도올학당 수다승철(재)	00 5 MBC 뉴스 3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최강 1교시(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위험한 약속	3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날아라 슛돌이 뉴 비기닝 스페셜	55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40 아무도 모른다
10	00 역사저널 그날 55 더 라이브	00 고립낙원 스페셜	05 살맛나는 세상	
11	35 KBS교향악단 말러 스페셜 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영화가 좋다(재)	00 PD수첩 55 그 남자의 기억법	00 불타는 청춘
12	00 바다 건너 사랑(재) 50 KBS 걸작 다큐멘터리(재)	1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나이트 라인 50 열린TV 시청자 세상(재)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07:1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08:30 출동! 슈퍼윙스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픽시
09:30 페파 피그
09:35 뽀로로와 노래해요
09:40 코로나19 극복 특별 생방송
-EBS가 함께합니다 1~2부
12:00 EBS 정오뉴스
12:10 코로나19 극복 특별 생방송
-EBS가 함께합니다 3부
13:50 미래교육 플러스
14:40 마샤와 곰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15:0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15:10 로보카 폴리(재)
15:2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재)
15:55 꼬마히어로 슈퍼잭(재)
16:10 픽시(재)
16:25 방귀대장 뿡뿡이(재)
16:40 딩동댕 유치원(재)
17:00 EBS 뉴스
17:20 출동! 슈퍼윙스(재)
17:35 페파 피그(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
19:00 형사 가제트
19:30 최고다! 호기심딱지
19:45 자이언트 펭TV
20:00 건축탐구 - 집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지금 아니면 못 볼 지도, 스리랑카 라오스
-돛단배와 춘빵을 아시나요?〉
21:30 한국기행
〈소쿠리에 담아 봄 2부
승부역, 할머니의 봄〉
21:50 EBS 다큐프라임
22:40 건축탐구 - 집
23:30 경이로운 지구
23:45 우주탐사 이야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31일 (음 3월 8일 癸酉)

☎ 010-9790-8237

子

36년생 상대 발언에 다중적 의미가 내포 되어 있다. 48년생 겉으로만 풍성할 뿐이지 실속은 빈약하다. 60년생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72년생 뒤도 돌아보면서 가는 것이 안전하다. 84년생 인간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96년생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으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7, 52

丑

37년생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점을 남길 수 있다. 49년생 청산 되지 않은 것은 소모적일 뿐이다. 61년생 유연하게 대응해야만 수용할 수 있다. 73년생 현재에 국한 시키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시각을 갖자. 85년생 어려움은 경험의 밑천이 될 것이다. 97년생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으니 수용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36, 75

寅

38년생 정밀하게 살펴야 파악이 가능하다. 50년생 만인이 부러워하는 경행이 따를 것이다. 62년생 부지런한 이가 선점하게 되는 법이니 방심하지 말고 진력하여야만 목적을 달성한다. 74년생 줄기찬 노력이 성공을 앞당길 것이다. 86년생 이면까지 살펴 본 후에 판단할 일이다. 98년생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하자. 행운의 숫자 : 52, 77

卯

39년생 원하는 대로 되어서 기뻐하리라. 51년생 잠자코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63년생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75년생 오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87년생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는 정황이다. 99년생 조심성이 지나치다면 위축되고야 말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3, 58

辰

40년생 일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느니라. 52년생 주관적인 판단은 금물이다. 64년생 기법에 신경 쓴다면 금상첨화이다. 76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함이 생산적이다. 88년생 참으로 신중하지 않는다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00년생 천 냥 빚도 말 한 마디로 갚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7, 89

巳

41년생 태산 같은 마음가짐으로 성숙함이 절실하다. 53년생 편리함만을 추구한다면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 65년생 극한 상황에서 선회하는 성국이니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내딛어야겠다. 77년생 길성과 흉성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다. 89년생 중함을 감안해야 무리가 없다. 01년생 정황을 인식하고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4, 74

午

42년생 현장 감각이 요구 되는 상황이니 실무에 능해야 한다. 54년생 항해하는 선박의 풍향이 수시로 변하는 이치이니라. 66년생 지연 되어 왔던 일의 물꼬가 트이리라. 78년생 전례에 얽매일 필요까지는 없다. 90년생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는 시세이다. 02년생 투명한 것이 좋으니 번거롭더라도 상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8, 70

未

31년생 중차대한 일에 직면하게 되리라. 43년생 마음에 동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 55년생 지난날의 노고에 대한 결과가 만족스럽겠다. 67년생 예리한 시각으로 주도면밀한 진행을 해야 한다. 79년생 기대치와 현태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라. 91년생 만남은 있으나 탐색전에 불과한 구도이니라. 행운의 숫자 : 18, 85

申

32년생 편협한 사고가 모순에 빠지게 한다. 44년생 참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하다. 56년생 전환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질 것이다. 68년생 결정적인 시기가 되었으니 주마가편하라. 80년생 걸림돌이 보이거든 제어하라. 92년생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핵심을 벗어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49, 60

酉

33년생 여러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게 되는 날이다. 45년생 결실을 목전에 두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일이 생긴다. 57년생 시기를 놓친다면 대비가 불가능하다. 69년생 말을 아끼지 않으면 지난날의 공로가 무너진다. 81년생 내리막길이기는 하지만 미끄러우니 세심하게 주의하자. 93년생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2, 86

戌

34년생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하겠다. 46년생 참고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다. 58년생 다수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순조롭다. 70년생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다. 82년생 충분한 의사 타진이 선행되어야 폐해가 따르지 않는다. 94년생 당위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03, 53

亥

35년생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7년생 규모에 맞게 대처해야 급락을 예방한다. 59년생 운신의 폭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71년생 위상을 달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83년생 순간의 선택이 전체적인 국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95년생 경제성에 일조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5, 50